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와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尚六道普說)의 비교 연구

김 희 경

Abstract

This paper is offered in the belief that it makes the examination of Mongsanhwasan gbeopeoyakrok and Mongsanhwasangyukdoboeseol within the comparative view. The main texts contai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anguage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15th or 16th centuries in the medieval times. Regarding bibliographic details in both, they are marked by the sutra in translation in a Korean version.

Basically it is going to be analyzed out the data with the bibliography and linguistics, such as a phonetic system, notation, lexicology and grammatical analysis. In this article, it is the main theme that whether these text, Mongsanhwasangbeopeoyakrok and Mongsanhwasangyukdoboeseol, are written by syllabication or not. Besides, it had better look over these annotations that are declared by a Korean consonant side by side, which is called Yeoncheol, and vowel harmony.

The evidence of considerable experiment has built up the process of researching these items closely with a broad transcription in the second chapter. It is also concentrating on the lexicology such as rare words in texts of the medieval times. Finally, it is read up on a subject of examinations in the particles of nominative, accusative and comitative case and about the endings such as the inflection or the mood of a verb.

蒙山和尚法語略録諺解と蒙山和尚六道普説を見比べながら、書誌学及び国語学的な事について特性を考察する事にした。まず、書誌学的なことに關して、蒙山和尚法語略録諺解と蒙山和尚六道普説は佛教に關する文献であり、蒙山和尚法語略録諺解は韓国語に翻訳されたものであるため、佛經の内容の翻訳されたものの特徴を理解する必要がある。

1.1. 章では、蒙山和尚法語略録諺解の詳しい書誌事項を考察する為に、この諺解本（漢文をハングルに翻訳した本）に現われた特性を見る。それから様々な版本を類型別で分類し、それぞれの特徴をまとめて見る事にした。そして、1.2. 章では、蒙山和尚法語略録諺解の版本の情報を集めて書誌的な理解を試みる。さらに1.3. 章では、蒙山和尚六道普説の版本に現われた書誌学的な情報を調べて、その詳細事項を順に整理して見る事にする。蒙山和尚法語略録諺解の原刊本、復刻本、改刻本、全面改竄本の姿と蒙山和尚六道普説の漢文本について調べる。

次に、全般的に蒙山和尚法語略録諺解と蒙山和尚六道普説は、後期中世の韓国語の表記法を見させているのだが、特に16世紀の文法的特性を反映した蒙山和尚六道普説と15世紀の中世語の文法的特性を、そのまま現しているこの二つの文献は皆、韓国語の言語史に於ける価値のある文献である。そこで、2章では韓国語学的表記法、音韻現象、新しい語彙などに関して考察するのである。

2.1. 章では合用竝書（それぞれ違った子音を並べて書く事）、分綴や連綴（形態的な表記）、母音調和などを中心に見る。2.2. 章では他の文献であまり現れない珍しい語彙を捜す事にする。また2.3. 章では、主格、対格、共同格の助詞を含め、意図法語尾（一人称に現れる語尾）、疑問型語尾などに対する文法事項を見る事にした。それから語彙及び文法的な特性は15世紀や16世紀の音韻学及び表記法を中心として調査を進めてみる事にした。中世韓国語のデータに現れていない貴重な単語を含め、韓国語学的な特性を徹底的に調べて見るのである。

以上のような構成で一見すると書誌学的な考察をした上で、韓国語の中世音韻と表記法、語彙、文法などを見直す事を目標するものである。

[Key Word]: Mongsanhwasangyukdoboseol, Mongsanhwasangbeopeoyakrok, Linguistics, Bibliography, Notation, Lexicology, Vowel Harmony, Syllabication, Mood

1. 기본 연구

본고는 몽산화상육도보설과 몽산화상법어약록에 나타나는 서지학적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음운과 표기법, 어휘와 문법적 특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5, 16 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경 언해류에 대한 서지학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와 몽산화상육도보설의 서지학적 특징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1.1. 과 1.2. 에서는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의 판본별 구성 방식을 살펴 보기 위해 원간본과 복간본, 개각본(축쇄본), 전면 개찬본에 나타난 체제를 비교하고자 한다. 1.3. 에는 몽산화상육도보설의 판본에 나타난 서지 사항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한편 2 장에서는 1 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와 몽산화상육도보설의 언어학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와 몽산화상육도보설에 나타난 형태적, 음운적 특징에 대해 살펴 보고 어휘 의미적 특징과 문법적 특이 사항에 대해 각각 살펴 보고자 한다.

1.1. 몽산화상법어약록 개괄

몽산화상법어약록이 불가에서 즐겨 읽는 법어 중 하나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¹⁾ 몽법은²⁾ 동시에 한국어학(Korean linguistics)에서도 귀중한 중세 한국어 자료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런 몽법의 서지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언어학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몽법은 기본적으로 불경을 언해한 서적으로, 권두 서명이 ‘몽산화상법어약록(蒙山和尚法語略錄)’이고 판심제는 ‘법어(法語)’이다. 몽법은 성종의 모후인 인수대비가 발원하여 언해 되었으며, 총 29 秩 중 몽산화상의 법어 6 판과 보제존자(普濟尊者)의 법어 1 편으로 모두 7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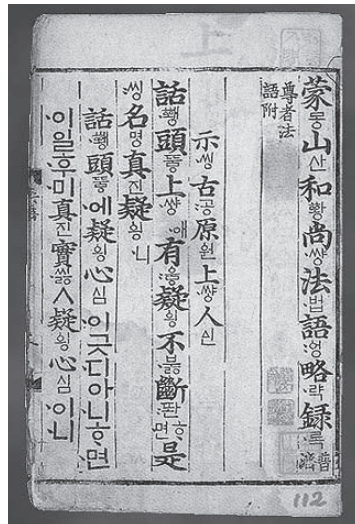
1) 불경 언해에 대한 세부 논의는 이호권 (2001:11-2) 참조.

2) 몽산화상법어약록(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을 이하 ‘몽법’이라 약함.

그럼 이제부터 몽법의 간행 과정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350년경 고려 말의 명승 보제존자 나옹화상(懶翁和尚)이 충정왕 2년 여름에 중국 평강 휴휴암에 있던 원나라 고승 몽산화상(蒙山和尚) 덕이를 찾아 보고 돌아오면서 그의 법어를 약록하여 책으로 묶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을 조선 세조 때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가 역해하여 현존하게 된 것이다. 동국정운식 한글음을 한자 밑에 달고 토와 함께 언해하는 형식을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³⁾ 이 몽법에는 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지침에 대한 것이 기술 되어 있는데, 몽산화상의 법어 “시고원상인(示古原上人), 시각원상인(示覺圓上人), 시유정상인(示惟正上人), 시총상인(示聰上人), 무자십절목(無字十節目), 휴휴암주좌선문(休休庵主坐禪文)”와 나옹의 법어 “시각오선인(示覺悟禪人)”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 몽법의 간행 과정 및 그 중심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았다.

지금부터는 몽법의 표기 방식과 판본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몽법의 판심은⁴⁾ 내향(內向) 흑어미(黑魚尾)이고 행관은 8행, 즉, 주의 쌍행이며, 법어의 본문은 1행이 17자로 구성되어 있다. 법어의 중간에 소자로 구결을 달고 행을 달리하여 공간을 두고 한자와 한글 중자(中字)로 언해하고 있다.⁵⁾ 또한 몽법에는 ‘월인석보’와 같은 방식으로 한글 왼쪽에 비점(批點)형 점을 찍



< 그림 1. 몽산화상법어약록의 모습 >

- 3) 신미(信眉)가 세조의 명을 받고 언해한 불경은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 사법어(四法語), 몽산언(蒙山謔)” 등이다.(간경도감 간행본)
- 4) ‘판심’은 본래 ‘판심어미’를 가리키는 말로, 판심어미란 판각본 양면의 정가운데, 즉 정간 부분에 인쇄하는 도형을 일컫는다.
- 5) “석보상절(釋譜詳節), 월인석보(月印釋譜), 훈민정음언해(訓民正音諺解)” 등과 동일한 표기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 방점을 표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몽법의 문자는 ‘월인천강지곡’이나 ‘석보상절’의 자형과 유사하고 홀소리 및 중성과 아래아(·)는 월인석보의 자형과 동일한 방식을 취해 권점에서 비점형의 사선으로 표기하고 있다. 게다가 언해문과 법어 본문에 한자를 표기한 방식 역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법을 따르고 있는 등⁶⁾ 몽법은 전반적으로 15세기 국어사 자료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⁷⁾

현재까지 세간에 유통되고 있는 몽법의 판본들은 대개 이간본(覆刊本)이거나 중간(重刊) 또는 모간(摹刊)된 것이다. 현존본과 원간본은 성종 3년경 인출되어 동국대학 도서관, 고려대학교 만송문고,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통문관에서 조영기, 이경로, 심재완 씨 등의 몽법 소장본을 입수한 바 있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도 일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통문관 영인본(影印本)은 원본 1卷, 1冊, 각본 발문 주인본(鑄印本) 匡從 22cm, 橫 15.8cm, 甲午 유하간(榴夏刊)으로, 1954년경 통문관에서 영인된 후 현재까지 10여 개의 이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활자본인 발문이 한 장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누락되었기 때문에 저자 및 간행 연월을 파악할 수 없다. 이런 실정이다보니 몽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행 연도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재완(1969)에서는 역해자명(譯解者名)과 발문종미(跋文終尾)가⁸⁾ 나오는 소장본을 몽법의 원간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안병희(1992:517)에서는 통문관 영인본은 1472년에 인출된 것이므로 다른 불서와 함께 이미 만들어진 책판에서 인출된 것이라고 보았다. 권상로(1954)는 남명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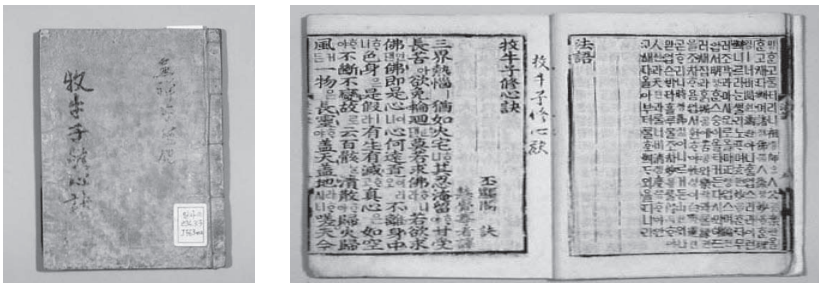
- 6) 중세 한국어 자료 “훈민정음언해(訓民正音諺解), 석보상절서문(釋譜詳節序文)과 월인석보(月印釋譜序文)”에도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주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 7) 몽법이 15세기 국어 자료라는 또 다른 근거는 방점이 표시된 한글 구결이 쌍행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아미타경언해(阿彌陀經諺解)”와 동일한 방식이며, 활자본 “아미타경언해(阿彌陀經諺解)”의 간행 연도 및 방점 표시법 등의 자세한 논의는 안병희(1980)을 참조.
- 8) 심재완 소장본의 발문에 “成火 八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몽법의 간행 연대를 성종 3년(1472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南明證道歌)에 몽법과 유사한 발문이 있으므로 몽법의 간행 연도는 성종 12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현배(1942, 1961)에서는 ‘사법어’ 뒤에 붓으로 써놓은 간기를 근거로 몽법은 1467년경(성화 3년) 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의는 ‘사법어’와 합철된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에 나타난 간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하다.⁹⁾

그러나 남광우(1959), 이기문(1963), 中村完(1963), 志部昭平(1983), 안병희(1992) 등에서는 몽법의 간행 시기를 모두 간경도감보다 이른 시기로 보고 있다. 남광우(1959)는 역자와 철자법을 살펴 볼 때 몽법은 ‘월인석보’와 동시대의 문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런 논의는 中村完(1963)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으나 이기문(1963)은 이에 반하여 몽법의 표기법에 주목하여 몽법이 세종대에 가까운 시기에 간행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다시 안병희(1992)에서는 몽법과 사법어의 간기를 모두 1495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志部昭平(1983)은 표기법과 연해 방식에 주목할 때 몽법은 ‘월인석보(月印釋譜)’와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 사이에 간행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몽법은 현재 상반재(上半載)만 남은 발문에 의지하여 그 간행 시기

- 9)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은 고려 보조국사(普照國師) 목우자 지눌(知訥)이 참선하여 마음을 닦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저술한 것으로, 비현합(丕顯閣)이 구결(口訣)하고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가 역해하였다. 조선 세조 13년(1467)경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며 23.1×17cm(책 크기), 18.8×12.6cm(반곽 크기)로 현재 보물 제 770 호로 지정되어 있는 귀중본이다.



< 그림 2. 목우자수심결의 모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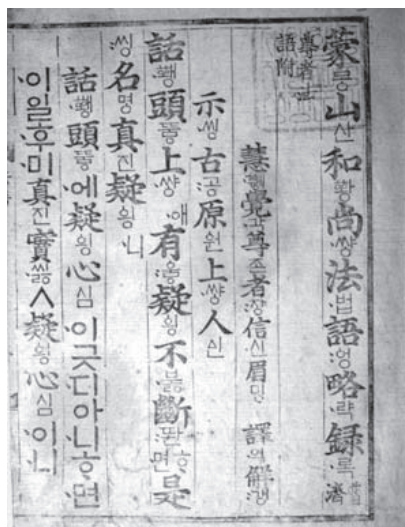
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원간본의 판본에서 초인의 간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입장의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몽법의 연해 연대와 간행 연대가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본이 아닌 판본에 나온 간기만을 보고 간행 연대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1.2. 몽산화상법어약록의 분류

1.2.1. 원간본 유형

현존하는 몽법 중 동국대 소장본(보물 767호)과 조명기, 이경로 소장본(보물 768호), 그리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본(보물 769호) 및 심재완 소장본 등은 원간본 유형의 몽법에 해당한다. 원간본 유형의 몽법은 공통적으로 김수온의 발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역기가 없으므로 몽법의 간기는 1472년경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이인영 구장본(舊藏本)이 통문관에 소장되면서 1954년경 영인된다. 이 몽법은 원본 1卷, 1冊으로 세로 22cm와 가로 15.8cm의 외향을 지니고 있다. 이 영인본(影印本)은 간기가 있는 발문을 낙장인 원본 그대로 간행하는 바람에 한 동안 초간본으로 오해된 적도 있었으나,(김무봉(2002:11)) 차후에 간기가 있는 다른 판본이 발행되면서 이런 오류는 바로 잡힐 수 있었다.

원간본 유형의 몽법은 다른 유형들과 달리 주격 조사의 위치가 특징적이라고



< 그림 3. 몽산화상법어약록 원간본 유형 >

할 수 있다. 동국대 소장본과 고려대 소장본의 몽법은 주격 조사가 행의 오른쪽에 표기되어 있으나, 심재완, 조명기, 이경로 등의 소장본과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몽법은 주격(nominative) 조사 ‘-이’가 중간에 나타나 있다.¹⁰⁾

한편 고려대 만송문고 소장본 역시 원간본 유형의 몽법에 속한다. 이 몽법에는 ‘역해’란 표기가 빠져 있는 것이 다른 판본과 구분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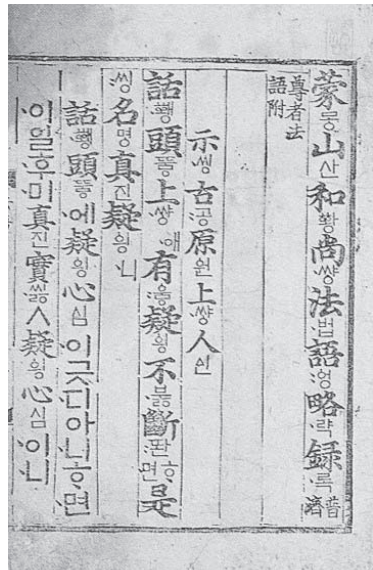
이 밖에도 천리대 도서관 소장본과 성암문고 소장본 등도 원간본 계통의 간본으로 볼 수 있다.

1.2.2. 복각본 유형

복각본 유형의 몽법은 지방 사찰에서 간행된 중간본 성격의 몽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복각본 유형에는 판본의 밑바탕에 역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등 비교적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한편 복각본 유형의 몽법은 1521년(중종 16년)의 유점사본과 동국대 도서관, 성대 도서관, 송석하 소장본 등이 해당한다.

사법어가 없는 자료 중에서 석륵암본(1523년(중종 18년))과 간송박물관 소장본 역시 이 복각본 유형에 해당한다.

한편 고려대 만송문고 소장본과 심원사본 등의 몽법은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에 합철된 몽법과 달리 사법어의 언어 체제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¹¹⁾



< 그림 4. 몽산화상법어약록 복각본 유형 >

10) 예를 들어 “工夫!” (김무봉 (2002:11) 에서 재인용) 에 주격 조사 ‘- 이’ 의 실현을 확인할 수 있다.

11) 몽법과 달리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에는 원문의 한자에 한자음의 주음이 없다.

이 밖에도 중대사본과 연세대 도서관 소장본 등은 복각본 유형의 몽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2.3. 개각본 유형

개각본의 몽법은 원간본과 언어 사실은 같으나 판식이나 체재를 달리하고 있는 유형으로 다른 말로 축쇄본 유형이라고도 한다. 이 유형의 몽법에는 고운사본과 성종조판의 중간(重刊), 서울대 가람문고, 고려대 화산문고, 이병주 소장본 등이 해당한다. 이 중 고운사본은 1517년경, 성종조판의 중간은 1472년 간행되었고 방발암본, 고려대 소장본은 1535년경에 각각 간행되었다.

개각본 유형의 몽법은 원간본 또는 복각본 유형과 달리 경계면이 8행이 아닌 7행의 유계(有界)로 구성되어 있고 1장의 앞면 역기란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몽법 앞에 사법어가 위치하고 있으며 작은 글씨의 쌍행 언해문이 있다는 것 또한 원간본 및 복각본 유형과 구분되는 점이다. 이와 같이 개각본 유형은 쌍행 언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1장에서 54장으로 그 양이 대폭 줄어든 몽법 자료이다.

1.2.4. 전면 개찬본 유형

전면 개찬본 유형의 몽법은 개각본 유형과 체재는 유사하지만 언어 사실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령 전면 개찬본 유형의 몽법은 송광사본이 가장 대표적인데, 원간본 몽법과 달리 오법어로 이루어져 있다. 원간본에 수록된 법어의 편수는 송광사본의 몽법에서 합철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¹²⁾ 권두 및 권말에 서명된 것과 판심제 모두 ‘법어’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것은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 및 원간본에 합철되어 현전하고 있다. 그러나 송

12) ‘사법어(四法語)’라는 명칭의 유래를 짐작할 수 있다.

광사본의 몽법은 원간본에 있던 나옹의 법어가 사법어로 옮겨 지면서 모두 오법어로 구성되어 있다.(김무봉(2002:6)) 전면 개찬본 유형의 몽법에서 판심제는 다른 판본과 달리 사법어 부분이 “법(法)”으로, 몽법 부분은 “육(六)”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송광사본의 몽법에는 지방 사찰본에 흔히 나타나는 세화문 어미와 흑어미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역기란은 아예 없고 간기는 56장의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계는 7행으로 본문과 언해문은 모두 15자로 이루어져 있다. 송광사본은 원간본과 달리 구결에 방점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현실 한자음이 주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다. 더욱이 다른 판본과 달리 사법어, 시각오선인법어, 몽법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전면 개찬본의 몽법에는 동국대 도서관 소장본, 서울대 일사문고, 국립도서관, 고려대 소장본 등이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언해본 뿐 아니라 실제로 한문본까지 합하면 몽법의 실제 수량은 엄청날 것이다.¹³⁾ 지금까지 살펴 본 몽산화상법어약록의 언해본은 15세기부터 수 차례의 중개간을 걸쳐 세간에 퍼져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1.3에서는 몽산화상육도보설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이 이어질 것이다.

1.3. 몽산화상육도보설의 서지 정보

육도보설은¹⁴⁾ 원나라 고승 몽산화상(蒙山和尚)이 유심조(唯心造)의 입장에서 육도(六道)와¹⁵⁾ 사성(四聖)을¹⁶⁾ 합한 십계(十界)를 사범입성(捨凡入聖)할 것을 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헌이다.

13) 한문본은 아직까지 많은 사본이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몽법의 실제 간행본 총수는 단언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14)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尚六道普說)을 이하 육도보설이라 약함.

15) 육도란 중생이 업인(業因)에 따라 윤회하는 여섯 가지 길 즉, 지옥도(地獄道), 아귀도(餓鬼道), 축생도(畜生道), 아수라도(阿修羅道), 인간도(人間道), 천상도(天道)를 말한다.

16) 사성(四聖)은 불교에서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대해중 보살의 네 성인을 가리킨다.

간경도감본이나 지방 사찰본의 육도보설은 형태적으로 매우 얇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자의 육도보설은 능화문이 없는 황색의 장지로 묶여 있으며, 가로 21.7cm, 세로 31.5cm의 외형을 띠고 있다.

판심은 上下內向黑魚尾가 대부분이나 1장은 上下大黑口이며, 6장은 上下大黑口와 上下內向四瓣花紋黑魚尾로 되어 있는 등 실제로 각 장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취암사본의 육도보설은 12자 내지 15자로 된 10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행에 두 줄로 표기되어 총 42장으로 이루어져 있다.¹⁷⁾ 이 판본은 닥나무를 원료로 한 한지에 목판으로 인쇄하였으며 서문과 발문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권수의 제목인 ‘몽산화상육도보설’이란 글자는 확인 가능한 반면, 간기를 비롯한 간행 동기와 관련된 단서를 쉽게 찾아 보기 힘들다. 그러나 취암사본 육도보설의 독특한 구성 방식과 외형적 특징 등에 근거해 볼 때, 육도보설은 선조 원년 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권말에는 육도보설의 원문을 玄玉, 玄宗, 寶彦가 적었고 일훈과 인화라는 사람이 판각을 담당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¹⁸⁾

취암사(鷲岩寺)본의 육도보설에는 판심에 한글로 ‘인’과 ‘화’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14에서 17까지의 어미에서만이 아니라 22, 23, 27 등에서도 이 글자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취암사본은 간경도감본과 유사한 외형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교정 과정에서 작은 실수를 범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¹⁹⁾

중국 원대의 임제종(臨濟宗)을²⁰⁾ 대표하는 몽산화상의 사상은 고려와 조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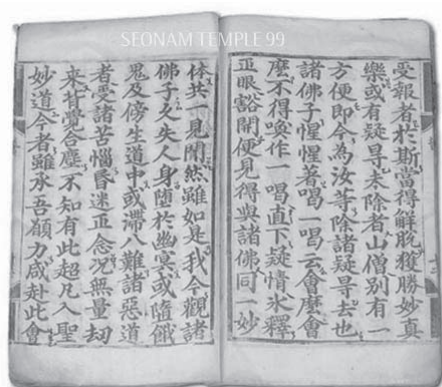
17) 남권희 (1991:63) 에 참조 .

18) 권말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陵慶元年 丁卯 秋日 全羅道 淳昌地 鷲岩寺, 困木, 邕世順, 寫經 玄玉, 玄宗, 寶彦, 刻手 一訓 印花, 化土 玄揖 天文

19) 이와 더불어 제 1 장에서 6 장의 뒷면은 12 자가 한 행으로 되어 있으나 , 7 장은 13 자로 되어 있으며 다른 장은 15 자로 구성되어 있는 등 구성의 통일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

20) 임제종 (臨濟宗)은 위양종 (仰宗宗) , 조동종 (曹洞宗) , 운문종 (雲門宗) , 법안종 (法眼宗) 등 선종오가 (禪宗五家) 의 하나로 중국 당나라 고승 임제의 종지를 근거로 일어난 종파이다 .



< 그림 5. 몽산화상육도보설의 한문본 >

선종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몽법과 육도보설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량의 판본이 간행될 수 있었고 이들 중 일부가 현전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권희(1991:10)의 간행 목록에 의하면 몽산화상법어약록의 연해본에 비해 육도보설의 판본이 적다.

몽법이 전국에 있는 사찰에서 비교적 활발히 간행된 반면, 육도보설은 수적으로 몽법보다 적기는 하지만 그나마 16세기 중반에 와서는 전국적으로 널리 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언어학적 접근

1장에서 살펴 본 서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번 장에서는 몽산화상법어약록과 몽산화상육도보설의 언어학적 이해를 더하고자 한다. 2.1.은 표기의 차이에 근거하여 음운론적 특징, 2.2.에서는 어휘 의미론적 특징, 2.3.에서는 통사 구조의 특징에 대해 각각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이번 장의 논의를 통해 국어사 자료로서 몽산화상법어약록과 몽산화상육도보설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2.1. 음운론적 특징

몽법과 육도보설에 나타나는 언어학적 특징에 대해 살펴 보기 위해 먼저 형태적(morphologic), 음운적(phonologic) 특징에 주목하고자 한다. 훈민정음 초기의 문헌에는 모음조화가 엄격히 지켜지지만, 석보상절이 간행된 지 10여 년 후의 불경언해에는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은 예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몽법에 나타난 표기만으로는 이것이 당대의 실제 언어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관원식 표기에 불과했는지 단언하기 힘들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몽법과 육도보설에 나타난 표기적 특징으로 먼저 모음조화에 대한 것이다. 그럼 몽법과 육도보설의 형태, 음운적 특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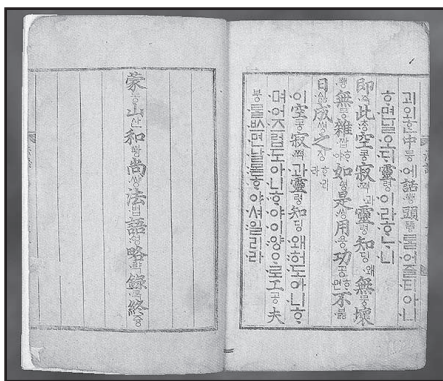
먼저 몽법과 육도보설에 나타난 병서의 쓰임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몽법에 나타난 어두 자음군은 ㄱ계 합용병서인 ‘ㄱ, ㄲ, ㄴ’와 ㅂ계 합용병서인 ‘ㅃ, ㅅ, ㅆ’ 그리고 ㅁ계인 ‘ㅁ’가 사용되었다.

고유어에는 ‘ㅅ, ㅆ, ㅁ’의 각자병서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 각자병서 중에서도 ‘ㄴ’이 쓰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자어 표기에는 ‘ㄱ, ㄲ, ㅃ, ㅅ, ㅆ, ㅁ’ 등의 병서가 모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말 자음군으로 사용된 문자로 ‘ㄴ, ㄹ, ㄷ, ㄹ, ㄷ, ㅁ, ㄱ, ㄴ’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중세 자료에는 사용되었지만 몽법에는 나타나지 않은 병서로 ‘ㄴ, ㅃ’가 있으며 ‘ㅃ’가 와야 하는 자리에 ‘ㅁ’가 사용된 예도 찾아볼 수 있다. 어두 자음군 ‘ㅁ’는 몽법에서 ‘ㄱ’로 나타나 있고 ‘ㅃ’가 사용된 용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1장에서 육도보설은 서지학적으로 16세기를 전후로 널리 간행되었



< 그림 6. 몽산화상법어약록의 본문 마지막 장 >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육도보설의 표기는 15세기 전기 중세의 표기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이런 육도보설과 몽법에 나타난 형태적 특징을 실례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먼저 육도보설의 (1)과 몽법의 (2)에 나타난 병서(write consonants side by side)의 쓰임에 대해 살펴 보자.

(1)(가) 나모까지(4a), 쓱미(38a), 썰리(34a), 떠러디거든(2a), 혼 썩(26b)

(나) 알 나하 뵙논(9b), 혼 뵙(40a)

(다) 다 거슬뵙 뭇숨(10b)

(라) 德行을 너비 뵙노푼며 뇨가온 果報를 조차(14b)

(마) 업스리오(40b), 부모이 업슨 돌 다 알오(23a), 이 물웁 어스면(39a)

(바) 쏘쏘비(25a), 열여덟(19a), 브라미 니러나(15a), 사양호미(9a)

(2)(가) 뵙 디니라(39b), 뵙비치(43a), 뵙뵙논(68a)

(나) 늘그닉(32b), 뵙고로도(64a), 업스니잇가(51a)

(다) 눈시우를(24b), 쏘쏘호야(42b), 슝슝(27b), 잠간(67a), 늣두베(3a)

(1)을 통해 육도보설에 나타난 합용병서의 쓰임에 대해 알 수 있다. 먼저 어두 자음군의 二字, 三字를 (1가)와 (1나)에서 각각 확인 가능하다. (1가)의 ‘한 썩’는 (1나)의 ‘뵙’가 ‘ㅅ’로 대체된 형태를 띠고 있다. (1다)는 ‘뵙’로 나타날 수 있는 실현 환경에서 ‘뵙’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당대에 음운론적으로 ‘ㅅ’와 ‘ㅈ’가 교체(alternation)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백두현(1991:77)) (1라)는 유기음 ‘ㅍ’앞에 ‘ㅂ’를 병서한 형태로 다른 중세 자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이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말 자음군의 형태는 (1마)와 (1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마)의 ‘어스면’에서는 ‘뵙’가 ‘ㅅ’로²¹⁾ 단순화되어 실현되어 있음

21) 현대어의 경상 방언에 일어나는 자음군의 단순화에 대해서는, 남부 방언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치고 있는 이승재(1980)를 비롯하여 김주원(1984), 이기갑(1989)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을 알 수 있다.

(2)를 통해서는 몽법의 어두와 어말 자음군의 형태적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다. (2나)는 (2가)와 달리 모음이 후행하여 연철되면서 합용병서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2다)에서는 어말 자음군으로 다양한 형태가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를 통해서는 몽법의 어두와 어말 자음군의 형태적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다. (2나)는 (2가)와 달리 모음이 후행하여 연철되면서 합용병서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2다)에서는 어말 자음군으로 다양한 형태가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1)과 (2)를 통해 살펴 본 몽법과 육도보설의 표기법 중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순경음 비읍이다. 즉 몽법과 육도보설은 순경음 ‘빙’가 실현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몽법에는 월인석보 이후 소멸한 문자 ‘빙’를 비롯하여 화엄경언해 이후 사라진 문자 ‘ㅎ’ 등이 실현되어 있다. 그러나 육도보설에는 ‘△, 땡, ㅇ’가 사용되어 있는 반면 ‘빙’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지학적으로 16세기의 자료로 볼 수 있는 육도보설은 15세기의 표기 체제(writing system)에서 조금 벗어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다음 (3)과 (4)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3) (가) ㄱ와 잇논 므리라(6a), 더운 므레(19b), 덩법울 도아 퍼리라(34b)

(나) 아신과(23a), 나사오나(24a), 무스글(23a)

(다) 천인(12a), 귀인(12a), 성인(7a), 지어니(23b)

(라) 이룰 지스며(8a), 복을 지스며(10b), 가스멸며(12b), 젓으와(27b)

(4) (가) 므거본돌(2a), 갓가븍리니(28a), 직벽으로(10a), 어지러롬(67a)

(나) 왓글와리니(6a)

(다) 설설(43a)

비록 훈민정음 초성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순경음 ‘병’²²⁾ 일반적으로 모음 사이나 ‘ㄹ’와 모음 사이 그리고 ‘ㄷ’와 모음 사이에 실현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몽법의 (4가)에는 모음 사이에 실현되어 있는 순경음 ‘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3가)에서 보듯이 육도보설에는 ‘병’가 모두 탈락하여 (4나)와 같은 형태로 실현되어 있다.

간경도감본의 후쇄본에는 ‘ㅅ’와 수의적 교체를 보이던 ‘ㄷ’가 더 이상 종성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³⁾ (4)에서도 ‘ㄷ’는 고유어 초성과 한자어 초성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종성으로는 쓰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반치음 ‘ㄷ’는 음운론적으로 모음 사이나 반모음과 모음 사이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두 자음으로 사용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²⁴⁾ 그런데 (4다)는 극히 드문 예이기는 하지만, ‘ㄷ’가 일반적인 쓰임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육도보설에는 어두 자음의 ‘ㄷ’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나)와 같이 순경음 비읍은 고유어와 한자어에 사용될 수 있으며 (3다)처럼 탈락되거나 (3라)와 같이 ‘ㅅ’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몽법과 육도보설에 나타난 연철 표기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몽법에서 한자어는 분철(syllabism)로 표기하고 있는데, 한자어가 아닌 다른 경우는 대부분 연철 표기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ㄱ’ 탈락이 일어날 때, ㄱ/르 불규칙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말 자음이 ‘ㄹ’이고 후행음이 모음일 때는 연철이 아닌 분철로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육도보설의 (5)와 몽법의 (6)의 실례를 통해 이런 표기 방식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22) 순경음 ‘병’의 실제 음가는 유성 마찰음으로 /β/로 나타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반모음 /y/와 모음 사이 그리고 ‘ㄹ’와 모음 사이에서는 ‘ㅂ’가 ‘병’로 표기되기도 한다.

23) 석보상절(釋譜詳節)과 월인석보(月印釋譜)도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4) ‘ㅅ’가 유성음 사이에서 약화된 변이음 ‘ㄷ’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이 모음의 어미나 조사와의 결합할 때 음운 변동을 일으킨다. 반치음 ‘ㄷ’에 대해서는 허웅(1982), 김석득(1965:76), 박병채(1972:306), 권재선(1976:85), 이기문(1963:8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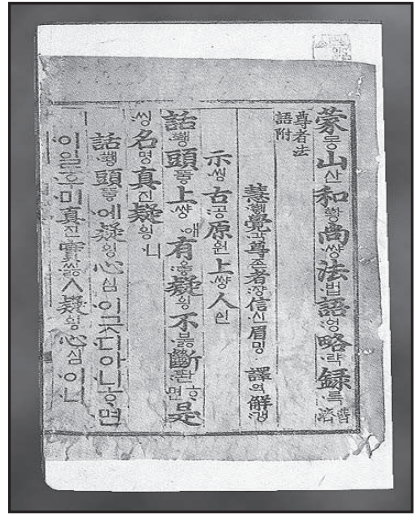
- (5) (가) 一切法이라(2b), 飲食을(9a)
 (나) 올오딧(41b), 알올디어다(33a)
 (다) 녀편아(39b), 디옥은(6a), 녀퍼니 날오딧(39b)
 (라) 잉에(42a), 주거은 잉에 잇다커니와(39b)
 (마) 人身를(13b), 분로(8a), 낫밤을 삼느니(15a)
- (6) (가) 疑心을(1b), 時節에(9a), 四威儀內에(15a)
 (나) 양으로(62a), 중이(11b), 중이어노(22b)
 (다) 니르론 말와(30a), 알오△(10a)
 (라) 다덜어도(43a), 혼골돈흔면(69b)
 (마) 날웁 단덴(66b), 날어도(53b), 올라(30b)

15세기 훈민정음으로 표기된 자료는 한자어를 제외한 거의 모든 표기가 연철로 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위에서 한자어의 분철 표기는 (5가)와 (6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5나)와 같이 고유어를 분철 표기한 것은 다른 중세 자료에서는 쉽게 찾아 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한자어로 표기되어야 할 단어가 한글로 표기되어 분철된 (5다)와 같은 예를 보면, 당대의 기록자는 ‘여편, 지옥’을 고유어로 인식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고유어의 분철은 다른 자료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중세 한국어의 분철 표기가 한자어에서 고유어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려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육도보설에는 (5마)와 같이 중철로 표기된 예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유성 자음 ‘ㄴ, ㄹ, ㄷ’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또한 중세 한국어에서 ‘ㅇ’을 받침으로 가지는 (5라)는 몽법의 (6나)에서처럼 연철되지 않고 분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다)는 ‘ㄴ’가 탈락한 자리에 원형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자

25) 육도보설은 몽법에 비해 시기적으로 나중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분철보다 중철로 표기된 예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여씨향약언해 (呂氏鄉約諺解), 중간두시언해 (重刊杜詩諺解)” 에도 이런 중철 표기가 나타나 있다.

두 번째 음절에 ‘ㅇ’을 그대로 쓰면서 분철시키고 있다. 한편 (6라)와 같이 ㄹ/르 불규칙 용언의 경우를 비롯하여 (6마)와 같이 유성음 다음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분철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세기에는 ‘ㅅ’가 나타나야 할 자리에 종종 ‘ㄷ’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역은 쉽게 찾아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²⁶⁾ 15세기의 자료인 몽법에서는 ‘ㄱ, ㅇ, ㄷ, ㄴ, ㅂ, ㅁ, ㅅ, ㄹ’의 8중성법이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육도보설 또한 8중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16세기 자료인 육도보설에는 음절말음



< 그림 7. 몽산화상육도보설의 모습 >

이나 어간 말음에서 ‘ㅅ’와 ‘ㄷ’의 혼기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⁷⁾

한편 몽법에는 사잇소리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8중성법에 따른 표기가 우선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7)은 육도보설의 ‘ㅅ’ 표기를, (8)은 몽법에서 사잇소리(epenthesis)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7)(가) 손싸당(11a), 잠잔(34a)

(나) 히듯 光明(11a), 핏기운(4a)

(다) 오늘 바미(33a), 오늘 싸미(29a)

26) 중세 한국어와 근대 한국어의 혼기에 대한 논의, 즉 ‘ㅅ’와 ‘ㄷ’에 대해서는 이기문(1972, 78)과 허웅(1982)에서 간명화 및 간소화로 논의된 바 있고, 이익섭(1963)에서는 중화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7) 16세기 이후에는 “소학언해(小學諺解)”(1578년 간행)를 비롯한 많은 문헌에 ‘ㅅ’와 ‘ㄷ’의 혼기가 더욱 빈번해진다. 한편 인조에 간행된 “마경초집언해(馬經抄集諺解)”에는 ‘ㄷ’가 오히려 ‘ㅅ’로 표기되면서 역표기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결국 18세기에 이르러 ‘ㄷ’는 사라지고 ‘ㅅ’로 통일되면서 7중성법이 확립되기에 이른다.

- (8) (가) 맛당ㅎ니라(3a), 굿디(11a), 엇던돌(22a), 짓와괴요매(1b)
 (나) 곧ㅎ리오(69a), 터럭글(12b), 보디 몰 ㅎ면(45a)
 (다) 늣두베(3a), 늣시우롤(24b), 늣죵△(25a), 늣광명이(53b)
 (라) 桃花ㅅ긔(10a), 혼두소리ㅅ話頭롤(36a)

후행하는 어두 자음과 함께 쓰인 (7가)와 어말 자음과 이어 쓰인 (7나)를 통해 육도보설에 나타난 사잇소리 표기를 엿볼 수 있다. (7다)와 같이 ‘오늘 바막, 오늘 싸막’은 사잇소리 표기의 수의적(optional) 실현 양상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몽법의 (8)에는 ‘ㅅ’과 ‘ㄷ’가 실현되어 있으며, (8가)와 (8나)에서 이 둘의 구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8다)에 와서는 사잇소리가 혼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 사잇소리 표기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명사의 결합에는 선행하는 형태소의 말음에 따라 ‘ㅅ’과 ‘ㄷ’가 삽입될 수 있는데²⁸⁾ (8라)의 한자어에는 ‘ㅅ’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ㅅ’는 속격의 기능을 하며 복합어임을 표기할 때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²⁹⁾ 한편 고유어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ㄹ’에 사잇소리 ‘ㅎ’가 연결되어 후행음을 경음화시키는 반면, 한자어인 경우 “無ㅅ字”와 같이 ‘ㅎ’가 사용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한 15세기 사잇소리는 (8라)와 같이 관형격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ㅎ’는 형태소를 연결할 때 선행 형태소 말음을 촉급하게 하는 부호인 동시에 명사끼리 결합할 때 유성음 뒤에서 관형격의 의미를 가지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8) 중세 한국어에서 명사의 결합에는 아음(牙音) 계열의 ‘ㅇ’ 아래에는 ‘ㄱ’를, 설음(舌音) 계열의 ‘ㄴ’ 아래에는 ‘ㄷ’를, 순음(脣音) 계열의 ‘ㅁ’ 아래에는 ‘ㅂ’를, 순경음(脣輕音) ‘ㅇ’ 아래에는 ‘빙’를, ‘ㄹ’ 아래에는 ‘ㅎ’ 등의 부호가 사용되었다. “훈민정음언해(訓民正音諺解)”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는 이런 규칙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29) 고영근(1993)에 의하면 체언이 결합할 때 음성적 환경에 따라 체언 사이에 끼어드는 자음이 사잇소리이다. 중세 한국어의 사이시옷은 대체로 여섯 가지가 있으나 근대로 갈수록 ‘ㅅ’로 통일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서는 ‘ㄱ, ㄷ, ㅂ, ㅅ, △, ㅎ’가, “훈민정음언해(訓民正音諺解)”에는 ‘ㄱ, ㄷ, ㅂ, ㅅ, ㅁ, ㅎ’가 쓰이지만 “석보상절(釋譜詳節)”에 이르면 동일한 형태인 ‘ㅅ’로 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ㄱ, ㄷ, ㅂ, ㅎ’의 형태는 중세 한국어뿐 아니라 근대의 문헌에도 간혹 나타나고 있다.

15세기 몽법에는 8종성법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으며 동시에 어간 형태소 내부에서는 모음조화가 엄격히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6세기에는 모음조화가 파괴되면서 18세기에 이르러 ‘으’가 소실되게 됨에 따라 점점 15세기의 표기 체제에서 벗어난 형태적 표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모음조화의 문란은 체언의 국용에서만 아니라 용언 어간의 내부에도 일어나게 된다. 다음 몽법과 육도보설의 예를 통해 모음조화(vowel harmony) 현상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9) (가) 부테 니르샤디(30b), 닛곤 報이(16a)

(나) 브라미 니러나(15a), 열여덟(19a), 서로(42a), 서르(9a)

(다) 부처의 가 供養호려 흐느 돌(30b), 아디 몰흐느 디(26a), 산승은(29b)

(라) 산승은(28a), 묘유느(32a), 바다 먹는 성황당(6b)

(마) 막수물 어즐리 흐고(6b), 브들 알면(1a)

(바) 梧桐花를(30b), 眞常을(27a), 일찍부를(28a), 凡夫를(19a)

(10) (가) 아줄티(26), 바르리(49a), 구을구을흐느(51), 웃드미(2)

(나) 속절(57), 글왈(20), 열쇠라(53)

(다) 가흐느(50b), 마른(19a), 아니호은(50a)

(라) 더느(29a), 너느(54b) 衲僧은(62b)

(마) 보라물(20a), 목수물(53a), 므스글(51a), 누늘(24b)

(바) 정을(25b), 일우물(34a), 눈시우를(24b), 혀를(31a)

(사) 쏘 모로매 定力을 便安히 護持호리니(18a)

육도보설에는 (9가, 다, 마)와 (9나, 라, 바)에서처럼 모음조화(vowel harmony) 일어난 예와 그렇지 않은 예가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9가)와 (9나)를 비교해 보면 어간 내부에서 ‘브롬 > 브람’과 같이 비어두의 ‘으 > 아’의 변화

를 통해(즉, ‘으’의 변화³⁰⁾)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¹⁾ 또한 (9나)의 ‘서르’와 ‘서로’,³²⁾ (9라)의 ‘산승은, 산승은’에서는 동일한 어휘에 서도 모음조화는 문란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서르’는 형태론적으로 어간 말음이 ‘으, 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제약을 받고 부상 파생 접미사에 ‘-(으)로’가 많기 때문에 ‘서로’로 변하는 과정에 나타난 표기일 것이다. 현대어에 ‘서로’가 사용되게 된 것 또한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몽법의 (10가, 다, 마)는 모음조화가 전반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예들이다. 그러나 보조 조사와 목적격 조사의 (9라)와 (9바)에서와 같이 (10라)와 (10바)에서도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10나)는 형태소 내부에서도 모음조화가 문란해 진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목적격 조사 ‘-을/를’의 형태는 (9바)와 (10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같이 몽법과 육도보설에서의 모음조화는 목적격과 보조격 조사 등 몇 예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몽법의 표기는 15세기 후반의 중세 한국어적 표기법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육도보설은 16세기와 15세기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세의 표기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의 형태적, 음운적 특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육도보설에는 순경음 ‘빙’가 실현되어 있지 않으며, 음절말음이나 어간 말음에서 ‘ㅅ’와 ‘ㄷ’의 혼기가 일어나고 있다. 이상 몽법과 육도보설의 실례를 통해 병서, 분철과 연철, 사잇소리, 모음조화 현상 등에 대해 살펴 보았다. 다음 2.2.에서는 몽법과 육도보설의 어휘적 특징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30) 한영균 (1990)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모음 체계는 /i/의 견인이 아래아의 변화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안병화·이광호 (1990:67-8)에 의하면 아래아의 변화는 16세기와 18세기의 2개의 단계에 걸쳐 일어난 것이지만, 두 번째 단계의 아래아 소실은 모음조화 붕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

31) 이기문 (1959)는 비어두의 ‘으 > 아’의 현상은 앞뒤에 ‘아’가 올 때 실현되는 일종의 동화 (assimilation) 현상으로 보고 있다. 가령 ‘아독흐 -> 아닥흐 -’ 또는 ‘꺾마니 > 가마니’에 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32) “계초심학인문 (誡初心學人文), 소학언해 (小學諺解)”에서도 ‘서로’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2.2. 어휘 의미론적 특성

몽법과 육도보설은 다른 문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희귀어를 가지고 있어 언어학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이다. 이번 장에서는 어휘 의미(lexical meaning)적 관점에서 몽법과 육도보설에 나타난 고유 어휘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다음 (11, 12, 13)에 육도보설의 예를, (14, 15, 16)에 몽법의 예를 각각 제시한다.

- (11)(가) 蓮 줄기를 떼터 古는 실 내여(11a)
 (나) 새로 씌오이 흐며 간고기 흐야(8a)
 (다) 한 번 액하고 날오되(25a)
 (라) 나찰귀왕이 핵호배 다시 사느니라(7b)
 (마) 더워 설우매 붓닷겨(8a)

위의 (11가)는 ‘떼-’와 ‘티-’가 결합한 ‘떼-’이고 (11나)의 ‘외오-’는 ‘교활하고 꾀가 많은’이란 의미의 파생 형용사로 모두 용언에 속한다.³³⁾ (11다)와 (11라)의 ‘액하-’는 ‘참선할 때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 짧게 외치는 행위’를 말하며 (11마)의 ‘붓닷-’은 ‘들볶여 괴로움을 받는 것’이란 의미를 가지는데, (11라)는 (11다)의 이형태(allomorph)로 볼 수 있다.

한편 육도보설의 체언류 중에는 다음과 같은 특수 어휘가 실현되어 있다.

- (12)(가) 궁더기 꼭리 득외여 놀며 궁병이 멀외 득외여 놀며(10a)
 (나) 그 각시 아바니미 자내 썩니물(11a), 쯔겨 숲숲흐샤(26b)
 (다) 구령이가 모티 득외며(10a)

33) 삼역총해 (三譯總解)(1703년)의 ‘쏘 무슴 말로 썩오라 왓는다 (7, 9)’와 동형이다.

(라) 녀퍼니 날오되(39b), 녀편아(39b)

위의 (12가)의 ‘열외’는 고어사전에 등재 되어 있지 않아 그 어원을 알 수 없지만 ‘열나물, 열대, 열치, 열구’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2나)는 재귀대명사 ‘자내’와 ‘조거’가 실현되어 있고, (12다)에서 ‘모티’는 수리 부엉이를 가리키는 어휘로 쓰이고 있다. (12라)는 위의 분철 표기의 논의에서 제시된 (5다)를 가져온 것으로, 문맥상 ‘여인’이란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육도보설에 나타나는 부사 및 기타 특이 어휘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13)(가) 아쇠라 아쇠라 어드러 가노 훈대(39b)

(나) 뭇 첫 겁등에(26b)

(다) 외과 돌과 해 부러 오락면(15a)

(라) 히득리 다 떠러디고 의리 부러 오락면 히득리 다 줌기고(15a)

(마) 다 훈셋 그티라(38a)

(바) 사름미 어긔 득라 갈아나며(8a)

(13가)는 ‘이끌다, 인도하다’의 뜻을 가진 ‘앗외-’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고³⁴⁾ (13나)는 ‘처음’이라는 의미의 ‘뭇’이 실현되어 있다.³⁵⁾ 한편 육도보설에는 다른 문헌에 나타나지 않았던 희귀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 (13다)의 ‘헤불-’과 (13라)의 ‘의리’가 그것이다. 전자는 ‘바람이 한껏 불어 오다’는 의미를 가지고 후자는 ‘바람이 거센 모양’을 가리킨다. (13마)에서는 ‘한 묶음’ 정도의 ‘한 + 셋’이, (13바)에는

34) 백두현 (1991:95)에는 ‘아소라’는 ‘아소 + 이라’로 분석되므로 현대어의 감탄사 ‘아, 아하’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월인석보 (月印釋譜)”와 “석보상절 (釋譜詳節)”에 나타난 다음의 예를 근거로 ‘앗외-’를 기저형 (underlying form)으로 보고자 한다.

(ㄱ) 大導師는 크신길 앓외시는 스스이라흔 마리라 (월석 9, 12)

(ㄴ) 導師는 法 앓외는 스스이니 如來를 슬복시니라 (석상 13, 16)

35) 15세기 자료 “월인석보 (月印釋譜)”에는 ‘뭇 처엄 (59)’이 실현되어 있다.

어간 ‘어기-’가 전성된 동사 ‘어긋-’가 실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어휘들은 대개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몽법에 나타난 고유 어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다음 (14)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4) (가) 허저즈로미 俗子 | 곧 허야(47b)

(나) 話頭 | 훈골온흐면(69b)

(다) 헤아리며 저즈리디 말며(28b)

(라) 막숨 뿌미 가국흐면(7b)

(마) 혀를 비바뜰니(31b)

(바) 고돌 술기자바든(44a)

(14가)의 ‘허저즈로미’의 기저형이 ‘허저줄다’라고 할 때, ‘허저즈로미’는 ‘일을 그르치다’란 뜻의 동사로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4나)는 ‘한결같다’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로 ‘훈골온흐다’ 또는 ‘훈골곧다’가 기저형이라고 할 수 있다.³⁶⁾ 한편 (14다)는 ‘짐작하다, 헤아리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저지르-’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14라)에는 ‘급하다’의 ‘ㄱ국하-’이,³⁷⁾ (14마)에는 ‘빨다’의 의미를 가진 ‘비왈-’을 찾아볼 수 있다.³⁸⁾ 한편 (14바)에서 ‘웁아매다, 잡다’란 의미로 쓰인 ‘술기잡-’은 다른 문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형태 중의 하나이다.

다음 (15)에 나타난 새로운 어휘의 특징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36) 김무봉 (1991: 23) 에 의하면 파생부사 ‘훈골오티’가 빈번히 출현하므로 기저형은 ‘훈골온흐다’에서 ‘훈골옳다’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학언해 (小學諺解)”에도 ‘훈골곧다 (5, 97)’의 형태로 실현되어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37) ‘ㄱ국하-’는 “삼략직해 (三略直解) (상, 31), 구급방언해 (救急方諺解) (하, 79), 정속언해 (正俗諺解) (3)” 등에 실현되어 있다.

38) 이조어사전에는 ‘비알-, 비왈-’이 기저형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우리말큰사전에는 ‘비왈-’으로 되어 있다.

- (15)(가) 직벽으로 대수 툰 소리에(10b)
 (나) 쇠뿔라 허야 쓰디 몰흐리며(14b)
 (다) 조귀의 울기를 자바든(12b)
 (라) 막숯 조기 뛰여(7b)
 (마) 땃은 핵홀씨니(31b)

(15가)에서 ‘대숯’이라는 뜻을 가진 ‘대수’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고,³⁹⁾ (15나)에는 ‘쇠 + 뿔’의 합성어(complex word) ‘쇠뿔’이 실현되어 있다.⁴⁰⁾ 몽법에서 ‘올가미’를 뜻하는 어휘는 (15다)와 같이 ‘올귀’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

한편 중세 한국어에서 ‘썩’(조각이나 쪽을 말함)은 이형태 ‘족’으로도 사용되었는데, 몽법의 (15라)에서 이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⁴¹⁾ 백두현(1991)에서 (15마)의 ‘핵홀씨니’를 다루면서 앞서 논의되었던 (11다, 라)의 ‘액흐-’의 이형태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음 (16)에 어휘 의미적 고찰이 필요한 예를 제시한다.

- (16)(가) 설설 흐르는 뽕겨레 비천 뽕비출 닐온 마리니(43a)
 (나) 서의히 훈 디위 허야(38b)
 (다) 흐워기 훈 디위 흐고(38b)

(16가)는 본고의 (4다)에서 이미 한차례 소개한 바 있는 용례로, 형태•음운론적으로 특이한 형태이면서 동시에 어휘 의미(lexical meaning)적으로도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16가)의 ‘설설’은 문맥상 물이 힘차고 거세게 흐르는

39) 기본형은 ‘대수ㅎ-’이며 “월인석보(月印釋譜)(8, 99)”와 “법화경언해(法華經諺解)(1, 155)”에서 동일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40) (15나)는 ‘쇠뿔(석보상절(釋譜詳節) 6, 38)’과 ‘쇠뿔(금강경삼가해(金剛經三家解) 2, 2)’ 등의 합성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1) 중세 한국어 ‘족’은 ‘흐르는 므른 파라호미 족 곧도다’(월명하, 10)와 같은 실현을 보인다.

모습을 가리키는 의태어이다. 한편 (16나)와 (16다)의 ‘서의희’와 ‘흐워기’에서 전자는 ‘성기게, 엉성하게’를, 후자는 ‘탐스럽게, 부드럽게, 두툼하게’를 가리키는 부사어로 쓰였다.⁴²⁾

이와 같이 몽산화상육도보설과 몽산화상법어약록에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형태가 실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혜불-, 미리, 술기잡-, 설설’ 등은 본고의 논의를 통해 밝혀진 새로운 중세 어휘로서 몽법과 육도보설 이외의 다른 문헌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특수 어휘에 대한 후일의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 다음 2.3.에서 몽법과 육도보설이 가지는 문법적 특징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2.3. 문법적 특징

이번 장에서는 몽법과 육도보설이 통사론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이번 장의 목표는 조사와 어미의 쓰임을 비롯한 몽법과 육도보설에 나타난 문법 특징을 개괄하는 것이다. 2.1.에서 살펴 보았듯이 두 자료는 중세 한국어의 표기사적 특징을 보여 주고 있는 자료이다. 2.2.에서도 어휘 의미적으로 중세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소수의 특수 어휘가 실현되어 있으며, 다른 중세 문헌과 구별되는 표기 체제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중세문헌으로서 몽법과 육도보설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몽법과 육도보설의 형태·음운적, 어휘 의미적 특징을 바탕으로 이들이 가지는 통사적(syntactic) 특징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중세 한국어의 주격 조사는 선행하는 체언 자체의 의미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통사적으로 그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42) “번역소학(翻譯小學)(1518년)”의 ‘맛드려 장타 흐워기 길워 일우면’ (8, 32)와 같은 예도 찾아볼 수 있다.

이다. 육도보설과 몽법에 나타난 주격 조사도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조사의 쓰임이 전반적으로 중세 한국어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음에서 몽법과 육도보설에 나타난 주격(nominative) 조사의 모습을 (17)과 (1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가) 두 가짓 道되 업스니라(육도보설, 38a)

(나) 네 어디이셔(몽법, 53b)

(다) 데 부터 즈비 넓고 크시며(육도보설, 42a)

(18)(가) 萬象森羅 | 이룰 브커 니러나며(육도보설, 3a)

(나) 道 | 女大海하야 轉入ㅎ디웃 轉深ㅎ리라(몽법, 49a)

(다) 話頭 | 純ㅎ면 起滅이 卽盡ㅎ리라(몽법, 69b)

(라) 疑團이 破ㅎ야 正眼開 | 近矣리라(몽법, 43b)

(마) 제불즈이 몬져 과위에 올라(육도보설, 34b)

위의 (17)은 체언에 주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를, (18)은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이’나 ‘- | ’가 교체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18가-다)는 주격에 대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조사가 생략되지 않고 실현되어 있는 형태들이다. 한편 (18마)는 (18다)와 같은 환경이 아닌데도 모음 뒤에서 주격 조사 ‘-이’가 독립적으로 실현되어 있다.

(17나)와 (17다)에서 체언 발음이 /i/와 /j/ 이외의 모음과 결합한 주격조사는 ‘네, 제’와 같이 하강 이중모음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체언이 거성 혹은 상성일 때는 그대로 실현될 수 있지만, 평성일 때는 상성으로 변화하여 “:제, :네”와 같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다음 (19)를 통해 서술격 조사의 실현 양상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19)(가) 그르 안 먼 사ㄹ미로다(몽법, 56b-57a)

- (나) 님궁과 신하와 서르 ㅎ양호미 강이오(육도보설, 9a)
 (다) 광을 두르헐 도라 비취여 法の 根源을 알쌀 선이오(몽법, 64b)
 (라) 差別이 잇는 境에서 差別 업슨 定에 들씨 坐ㅣ오(몽법, 64b-65a)
 (마) 萬德ㅣ라 호문(육도보설, 3b)

몽법에 나타난 (19가)는 서술격 조사가 체언과 결합한 형태이고, 육도보설과 몽법의 (19나)와 (19다)는 선행자음 뒤에 서술격(substantive, copulative) 조사 ‘-이-’가 나타나 있다. 한편 선행 모음 뒤에서는 대개 (19라)와 같은 형태가 보편적이거나, 육도보설의 (19마)와 같은 예외적 형태도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몽법에는 주격과 달리 서술격 조사가 자주 생략되기도 하는데,⁴³⁾ 이것은 서술격 조사 ‘-ㅣ-’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활용어미가 뒤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무봉(1991:20)) 이와 같이 주격 조사와 달리 서술격 조사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관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20)과 (21)에는 몽법과 육도보설에 나타난 대격(accusative) 조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20) (가) 올흔녁 소넷 혼 가짓 고줄 노하 ㅅ린대(육도보설, 30b)
 (나) 부텃 ㅅ수물 아로되 혼가지라(몽법, 49b)
 (다) 일천백즉 공안을 ㄴ네 면전을 향ㅎ야 자바 내리오(몽법, 59a-b)
 (라) 가지가짓 가줄빔과 가지가짓 방변을 너비 니ㄹ샤(육도보설, 21a)
 (마) 다룬 後ㅅ 마를 ㅎ 마기오기 잇느니 그르 안 먼 사ㄹ미로다(몽법, 57a-b)
 (바) 미묘흔 도를 아디 몬호미ㅅ냐(육도보설, 25b)

- (21) (가) 시절룰(육도보설, 24a)
 (나) 아미타불룰(육도보설, 42a)

43) ‘骨髓시며 (51b), 혼가지라 (42b), 大悟ㅣ 近矣리니 (27b)’ 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다) 방변놀(육도보설, 25a)

위의 (20)을 통해 육도보설과 몽법에 나타난 대격 조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가)와 (20나)는 선행자음에 대격 조사가 직접 붙어 있고 (20다)와 (20라)에는 ‘-으/으-’가 삽입된 형태의 대격 조사 ‘-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마)와 (20바)는 대격 조사 ‘-ㄹ’에 ‘-을/을’이 결합한 ‘-를’이 실현되어 있다.⁴⁴⁾ 이와 같이 몽법과 육도보설에는 기본적으로 15, 16세기 대격 조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중세 자료에 선행말음이 모음일 때는 대격 조사가 ‘-를’의 형태를 띄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21)은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즉, (21)은 모음 조화가 문란해진 형태로써 다른 중세 문헌과 달리 선행 말음이 자음인데도 ‘-를, -를’이 실현되어 있는 것이다. 선행음절의 ‘-ㄴ’가 다시 나타난 (21다)는 다른 중세 문헌에서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형태이다. 이와 같이 전기 중세어의 모습을 보이는 몽법과 달리 육도보설은 후기 중세적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육도보설과 몽법에 나타난 공동격(comitative) 조사의 형태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다음 (22)와 (23)에서 공동격 조사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2) (가) 성문과 연각과 보살와 불왜 닐온 내가짓 성이니라(육도보설, 16b)

(나) 이 無_ㄴ字_ㄴ 有_ㄴ心和 無_ㄴ心과 다 스뵈디 몰_ㄴ후_ㄴ니라(몽법, 59a)

(다) 룩딘과 룩근과 국식과를 노하 브리며(육도보설, 31b)

(라) 네 가지 저품 업숨과 不_ㄴ共_ㄴ法과를 어드샤(육도보설, 19a)

(마) 몸과 므스과를 굿놀로올 모디 마룻디니라(몽법, 35a-b)

44) “월인석보(月印釋譜), 석보상절(釋譜詳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서 다음(ㄱ, ㄴ, ㄷ)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ㄱ) 精_ㄴ舍_ㄴ를 디나아 가니(월석 1, 2) (ㄴ) 나를 겨집 사_ㄴ미_ㄴ시니(석상 6, 4)
(ㄷ) 天_ㄴ下_ㄴ를 맛_ㄴ득_ㄴ시_ㄴ릴_ㄴ씩(용가 6)

(바) 호귀흔 막숨과 굿센 양흔는 막숨과로 가져(육도보설, 10b)

(23)(가) 아비와 子息과 서르 스양호미 綱이오(육도보설, 9a)

(나) 三要와 種種 差別智와 一切 無碍慧 다 이룰 從하야 나느니라(몽법, 59b-60a)

(다) 가지가짓 가줄빔과 가지가짓 方便을 너비 니르샤(육도보설, 21a)

(라) 일 막춘 사룩몬 주굼 사로매 능히 추한 거슬 밧고아(몽법, 48a)

위의 (22가)와 (22나)는 주격과 결합한 반면, (22다, 라, 마)는 공동격과 대격 조사가 함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⁵⁾ (22바)에는 공동격 조사에 도구격 조사 ‘-로’가 결합되어 ‘-과로’로 실현되어 있다.(백두현(1991:18)에서 재인용) 한편 공동격 조사가 생략되거나 공동격 조사와 후행하는 조사가 연이어 생략되는 경우도 나타나는데, (23가)에는 주격 조사가, (23나)에는 주격 조사와 공동격 조사가 함께 생략된 것이 그것이다. 또한 (23다) 역시 대격 조사 앞에 공동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다. (23라)는 ‘죽음과 삶’의 구문으로 조사가 나타날 법한 구문이지만 실제로는 ‘주굼 사로매’와 같이 조사가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세어의 어미(ending) 체제는 평서형을 중심으로 의문형, 청유형 어미를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고는 이 중 몽법과 육도보설의 어미 체제를 살펴 보기 위해 의문형 어미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더불어 선어말어미 중에서 의도법 선어말어미의⁴⁶⁾ 활용에 주목하여 몽법과 육도보설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실현 양상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45) 안병희·이광호(1990:154)에 의하면 중세 한국어에서 대격과 공동격 조사가 결합한 ‘-와를’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인칭대명사는 “또 날와 남산애 모다(법화경언해 서문(法華經諺解序文) 21) 나, 인과 날와 보느니(석보상절(釋譜詳節) 13, 25)” 등에서 ‘-ㄹ와’로 나타난다.

46) 중세 한국어에 나타나는 ‘-오-’는 실제 ‘삽입모음, 인칭활용어미, 대상활용어미, 의도법어미’ 등 다양한 용어로 불려 지고 있다. 본고는 중세 한국어의 ‘-오-’를 ‘의도법어미’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몽법과 육도보설에 나타난 의문형(interrogative) 어미의 실현 양상을 살펴 보기 위해 (24)와 (25)를 다음에 제시한다.

(24) (가) 두룩혀 도라 술퍼냐 몰라냐(19b)

(나) 아라냐 마냐 아라냐 마냐(25a)

(다) 잠깐 니나 스랑으야 아라냐 몰라냐(24a)

(24) (가) 두룩혀 도라 술퍼냐 몰라냐(19b)

(나) 아라냐 마냐 아라냐 마냐(25a)

(다) 잠깐 니나 스랑으야 아라냐 몰라냐(24a)

(25) (가) 비록 그러흐나 이 無_ㄴ字는 어느 고돌 從_ㄴ야 나뇨(60a-b)

(나) 므슴 奇特이 잇_ㄴ뇨(60b)

(다) 어느 고대 잇_ㄴ뇨(58b)

(라) 뉘네 面前을 向_ㄴ야 자바 내리오(59a-b)

(마) 어니 너의 自己오(59b)

(24)는 육도보설에 나타난 의문형 어미, (25)는 몽법에 나타난 의문형 어미를 각각 찾아볼 수 있다. 중세 한국어에는 일반적으로 판정 의문(yes-no question)의 ‘-어’와 설명 의문(explanatory question)의 ‘-오’가 선어말어미 ‘-니-, -리-’와 결합하여 ‘-녀, -뇨, -려, -료’ 등으로 실현된다.(안병희·이광호(1990:240)) 몽법의 (25가)에서 ‘-뇨’를, (25나)와 (25다)에서 시상 선어말어미 ‘-ㄴ-’과 결합한 ‘-ㄴ뇨’의 형태를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육도보설에는 (24)와 같이 ‘-냐’가 실현되어 새로운 의문형 어미의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한편 (25라)에는 선어말어미 ‘-리-’와 설명 의문의 ‘-오’가 결합한 ‘내리오’의 모습이 확인 가능하며, (25마)에는 설명 의문의 ‘-오’가 나타난 ‘自己오’를 찾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몽법과 육도보설에 나타난 의도법 선어말어미 ‘-오-’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의도법 선어말어미(prefinal ending)의 형태는 다음 육도보설의 (26)과 몽법의 (27)에서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26) (가) 너비 실이미곤고(36a)

(나) 가지가짓 가줄빔과(21a)

(다) 막숨도 아니며 부터도 아노몰 닐온 道 | 라(4b)

(라) 장엄흔지빅(11a)

(마) 아디 몬흔논 디(26a)

(27) (가) 이 第一 므되니 곧 그 뵘 乘하야셔 나소 거룻디니라(40a-41b)

(나) 物을 敎化흠디면 히미 乾坤에 느로몰 禪이오(65a)

(다) 부터와 祖師왜 사꺾밧게 의이산 고들 술기자바든(44a)

(26가)와 (26나)는 동명사형 어미 앞에 ‘-오-’가 실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26다, 라, 마)에는 의도법 선어말어미 ‘-오-’의 형태가 확인 가능하다. 또한 몽법의 (27가)에서 ‘거룻디니라’를 ‘겔- + -오- + -²⁰ # 득- + - | - + -니라’로 형태 분석할 때 의도법 선어말어미 ‘-오-’가 실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⁷⁾ (27나)에서 ‘敎化흠디면’은 ‘敎化헉- + -오- + -²⁰ # 득- + - | - + -면’으로 분석 가능한데, 이 때 의도법 선어말어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7다)에서 ‘의이산’을 형태 분석하면 ‘의이- + -샤- + -오- + -ㄴ’이 되므로 (27가, 나)와 마찬가지로 의도법 선어말어미 ‘-오-’의 형태가 확인 가능하다.

47) 중세 한국어에는 시상 선어말어미가 아닌 의도법 어미가 빈번한 실현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안병희·이광호 (1990:240)에는 부정칭의 선어말어미 ‘-니-’와 ‘-다’가 결합한 ‘-(오/우)라’에 대한 설명도 찾아볼 수 있다.

(ㄴ) 내 게으르디 아니호므로 正覺을 일우리라 (석상 23, 13)

(ㄴ) 내 흐마 命終호라 (월석 9, 36)

이상 육도보설과 몽법에서 조사와 어미의 실현 양상을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전자는 주격, 대격, 서술격, 공동격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후자는 의문형 어미와 의도법 선어말어미에 대해 살펴 보았다. 육도보설에는 모음조화를 비롯하여 전기 중세어적 틀에 어긋나는 예가 일부 실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몽법은 전반적으로 15세기, 16세기의 중세 한국어 자료와 문법적 특징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맺는 말

3.1. 요약 및 정리

본고는 몽산화상법어약록과 몽산화상육도보설의 서지적 접근과 동시에 어학적 분석을 시도하려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1.1.에서는 몽법의 서지학(bibliography)적 고찰을 위해 언해본에 나타나는 외향적 특징을 살펴 보고 1.2.에서는 다른 판본들의 유형별 분류를 시도하였다. 몽산화상법어약록의 판본에 나타난 서지 정보를 알아 보기 위해 원간본, 복각본, 개각본, 전면개찬본 유형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1.3.은 몽산화상육도보설의 판본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위해 기술되었다.

2장에서는 몽산화상법어약록과 몽산화상육도보설의 언어학(linguistic)적 이해를 목표로 표기법, 음운 현상, 휘귀어, 조사 및 어미 등의 문법 사항에 대해 개략하였다. 2.1.에서 합용병서, 분철, 연철, 사잇소리, 모음조화 현상 등을 다루었고 2.2.에서는 다른 문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이 어휘에 주목하였다. 2.3.에서는 주격, 대격, 서술격, 공동격 조사를 비롯하여 의문형 어미와 의도법 선어말어미 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요컨대 몽법과 육도보설은 15세기 후반의 표기법을 따르고 있으며 육도보설은 부분적으로 16세기적 문법 요소를 동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도보설은 후기 중세 한국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몽법은 15세기 중세어의 문법

적 특징이 그대로 반영된 국어사 자료임을 시사해준다 하겠다.

3.2. 남은 말

첫째, 육도보설의 판본 및 한문본이 아직 사장되어 있는 관계로 세부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른 논의들에 기댈 수 밖에 없었다. 후일 육도보설의 판본별 분류와 구체적인 서지 정보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어휘의 발견은 중세 한국어의 어휘장(lexicon)을 보다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특이 어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현재 고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어휘의 경우 다른 문헌의 용례들과 비교하면서 그 의미와 쓰임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셋째, 2.3.에 처격(locative), 속격(genitive), 구격(instrumental), 호격(vocative)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과 보조 조사 ‘-ㄴ(-은/은, -는/는)’ 등에 대한 부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란, -랑’과 ‘-도, -만/뿐, -두고, -이라와, -부터, -식장, -서, -아, -곳, -다빙, -다히, -자히, -잇든’ 등의 실현 양상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 봐야 할 것이다.

넷째, 원간본과 후쇄본들의 표기와 문법 사항을 대조하면서 국어사(historical linguistics)적 변화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⁴⁸⁾

다섯째, 육도보설에 나타난 ‘ㄷ, ㅌ’의 구개음화(palatalization) 현상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구개음화 현상은 일반적으로 함경도나 남부 방언에서 먼저 일어난 것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ㄷ’구개음화 관련 예(‘데석기 말숨 묻혀야(40a)’ 등)를 분석하면서 육도보설의 원간본과 판본에 나타난 구개음화 현상에 대해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 져야 할 것이다.

이상 본고에서 못다한 논의는 후일 문법과 육도보설의 연구에 작은 버팀목이 되어 후속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

48) 실제로 문법(송광사본과 원간본)에 대한 비교 연구는 김우봉(2002)에서 부분적으로 시도된 바 있다.

참 고 문 헌

〈서적 논문류〉

- 고영근(1987),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권상로(1954), '몽산법어'해제,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통문관
- 김우봉(2002),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역주 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김영배(1972), '석보상절 23, 24' 주해, 일조각
- 김희경(2007), The Principle of Hunminjeongeum and other letters, Matsuyama Ronshu 19-2, Matsuyama Univ.
- 남권희(1991), '몽산화상육도보설' 언해본의 서지적 고찰, 어문총록 25, 경북어문학회
- 남성우(1986), 15세기 국어의 동의어 연구, 탑출판사
- 남성우(2006), 16세기 동의어 연구, 박이정
- 박병채(1987), '몽산화상법어약록' 언해 이해,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아세아문화사
- 박종국(1987), '몽산화상법어약록' 언해 해제, 세종학연구 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백두현(1991), '몽산화상육도보설'의 국어학적 연구, 어문총록 25, 경북어문학회
- 박창원(1984), 중세국어 음절말 자음 체계, 국어학 13
- 심재완(1969), '몽산화상법어약록' 언해攷, 동양문화 10, 동양문화연구소
- 안병희(1979), 중세어의 한글 자료에 대한 종합적 고찰, 규장각 3
-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기문(1972),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 이기문(1978), 십오세기 표기법의 일고찰, 언어학 3
- 이기문·김진우·이상익(1984), 국어음운론, 학연사
- 이익섭(1963), 15세기 국어 표기법연구, 국어연구 10
- 이익섭(1992), 국어표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호권(2001), 석보상절의 서지와 언어, 국어학총서 39, 태학사
- 조성숙(2002),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의 표기법 연구, 단국대 국어교육과 석사논문
- 허웅(1982), 국어음운론, 정음사
- 허웅(1983), 국어학(오늘말의 어제와 오늘), 샘문화사

〈사전 및 기타 자료〉

- 남광우(1960), 고어사전, 일조각
- 국어사전편찬위원회(1986), 국어대사전, 삼성문화사
-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02), 역주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해각존자편(1978), 몽산법어, 선학간행회, 여원출판국
- 유창돈(1964), 이조어사전, 연세대출판부
-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옛말과 이두), 어문각